주한 美 대사 첫 전남대 방문…리퍼트 대사 특강 성사 배경과 의미

5·18 이후 반미의 중심, 36년만에 문 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캠퍼스에 발을 들였다. 올해로 6년째 전남대에서 열리는 국제여름학교 개강식을 맞아 전남대 초청으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기 위한 방문이다.

미국대사관과 전남대는 리퍼트 대사의 이날 전남대 방문과 관련해 노심초사했다고 한다. 1980년 이후 반미의 총본산 격으로 인식된 전남대 캠퍼스에 미국대사가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행사였기 때문이다. 국내 반미운동의 시초가 1980년 12월 광주시 동구 황금동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방화사건의 배경에 5·18 당시 미국정부에 대한 광주시민의 배신감이 자리했다. 5·18의 시작과 중심에 전남대학교와 전남대 학생들이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1980년 이후 전남대는 반미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날 리퍼트 대사의 전남대 특강은 대학본부와 미 대사관 측의 우려와 달리 무사히 잘 치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전남대 공과대학에서 '세계 속에서 보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은 300여명의 학생들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2010년 전후로 전남대와 미 대사관 양측은 모두 주한 미국대사의 전남대 특강을 수차례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고 한다. 미 대사의 특강 내지는 대학 방문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총학생회 등 대학 구성원 일부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날 특강과 관련해 미 대사관 측이 강의 주제는 물론 특강일시 등을 일절 함구해달라고 대학 측에 요청한 것도 혹시 모를 재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남대 한 관계자는 "5·18 당시 광주시민들은 미국항공모함 입항 소식이 알려지자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을 도우러 온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면서 "이후 한국군 전방 부대가 5·18 당시 투입된 점도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마저 드러나면서 반미감정이 전남대와 광주시민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했었다. 미국 정부와 미 대사관 모두 이 점을 항상 의식하고 경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전후 수 차례 추진
총학생회 등 반발에 무산
국제여름학교 맞춰 초청
학생들 호응 속 특강 마쳐

5·18 재단 방문에도 공 들여
5월 단체장들과 면담은 안해

리퍼트 대사의 5·18기념재단 방문과 관련해서도, 미 대사관 측은 상당한 공을 사전에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리퍼트 대사의 재단 방문 및 이사장 면담 의사를 밝히며 동의를 구했고, 재단 측의 미 대사관 보유 5·18기록물 제공 요청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자세를 낮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날 리퍼트 대사가 5·18 재단을 방문하는 시간에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등 5·18 3단체장이 모두 재단 건물에 마련된 단체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지만, 면담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5월 단체 한 관계자는 "5·18 당시 미국이 광주시민들의 생각과 달리 전두환 일당의 만행을 묵인한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 "5·18재단 관계자 면담과는 달리 5·18 당사자인 유족회, 부상자 단체와의 면담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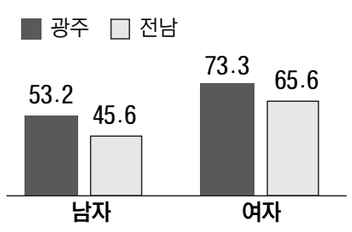
미 대사관 측은 리퍼트 대사의 광주 방문에 대해 "전남대 특강, 5·18 재단 방문 모두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마크 리퍼트(앞줄 왼쪽)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를 찾아 국제여름학교 특강을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암환자 발생 첫 감소…2013년 1만7014명

■ 광주·전남 암환자 5년 생존율(%)



화순전남대병원 암센터 통계

광주와 전남의 암 환자 발생이 2013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순전남대병원 전남지역암센터와 광주·전남지역암등록본부는 22일 '1997~2013년 지역 암 등록 통계'를 분석한 '광주·전남 암 발생률 및 생존율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광주에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총 5855명(남 2746명·여 3109명), 전남은 총 1만1159명(남 6047명·여 5112명)이었다. 2012년에 비해 광주는 252명, 전남은 6명 감소했다.

암 환자 발생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2013년 기준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광주는 갑상선암, 위암, 대장항문암, 폐암, 유방암 순이었으며 전남은 갑상선암, 위암, 폐암, 대장항문암, 간암 등이었다.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광주는 남자 53.2%·여자 73.3%, 전남은 남자 45.6%·여자 65.6%로 나타났다. 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간(2004~2013년) 시·군·구별 암 발생률은 광주에서는 동구가, 전남에서는 구례가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광주 남구, 전남 여수였다. /채희종기자 chae@

포문화포럼 참석 마츠우라 前 유네스코 사무총장

"문화도시 광주 조성 위한 시민·행정기관 노력 인상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화순 운주사 답사도

"행정기관이 문화정책을 역점추진하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마츠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22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광주일보 취재진을 만나 '광주의 인상'을 이같이 표현했다. 그는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아시아문화포럼 발제자로 광주를 방문했다. 외교관이었던 그는 1999년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올라 재선한 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광주를 방문했을 때 문화수도 육성계획을 들었는 데, 문화전당이 건립되고 같은 장소에서 문화포럼이 열려 감회가 새롭다"며 "문화포럼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그 결과가 아시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전당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사무소가 설치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기쁘다"며 "이 기구가 국가간 상호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마츠우라 고이치로 사무총장은 이날 화순군 초청으로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운주사 등을 답사했다. 그는 "프랑스, 영국 등지에 있는 고인돌이 대한민국 화순에도 집중돼 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가 공감하는 글로벌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화순군이 운주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언도 했다.

그는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재가 온전하게 보존돼 있느냐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전남도, 시외·시내·농어촌버스 267억 지원

전남도가 올해 도내 시외버스 6개사와 시내·농어촌버스 46개사에 모두 267억 60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차량등록대수와 유류사용량이었던 배분기준에 지난해 처음으로 추가한 적자노선 손실액의 비중을 더 높였으며, 향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에 근거해 적자손실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도내 버스노선 중 적자노선이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22일 '전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2016년 배분기준 조정위원회'를 열고 차량등록대수, 유류사용량, 적자노선 손실액의 비중을 각각 35%, 35%, 30%안을 확정했다. 이날 조정위원들은 적자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농어촌노선 등을 소유한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적자노선 손실액 비중이 20%였다. 전남도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30% 이내로 한정해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되 인센터브 및 패널티 역시 전체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예정이다.

도내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의 대당 표준원가는 각각 3억5803만 8000원, 3억1065만5000원, 2억4808만 5000원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에 비해 사고가 잦아 보험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시외버스 244개, 시내버스 396개, 농어촌버스 1413개 등의 노선 가운데 적자 노선은 각각 133개, 362개, 1388개였다. 전체 2053개 노선의 91.7%에 달하는 1883개 노선이 적자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사람찾음

성명: 박영옥(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옅은 보라색 상의 잠바와 옅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밤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으심.

위 인상착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찰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대 지
투자 가치 좋습니다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일반 상업지역/6차선 도로 접/현, 주차장
▶시세 / 감정가 - 23억원
▶융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매매 - 협의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주인직매 H.010-8829-6876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서구 양동 월산사거리 지하1층~5층 숙박시설(원룸가능) 대지 175평 건물 425평 ▶ 감정가 11억 최저가 4억9천만원
- 북구 동림동 동림지구 맞은편 큰도로변 3층근린주택 대지 207평 건물 385평 ▶ 최저 거래가 10억원
- 광양시 광양읍 주공후문 코너 건물 109평 토지 155평 음식점 및 사무실추천 ▶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4억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 감정가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감정가에56%)
- [급매]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넓음. 투자수익 프랜차이즈 추천 ▶ 거래가 18억원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진입가능 창고상태양호 ▶ 감정가 1억2백만원 최저가 6천6백만원
- 북구 용봉동 3층원룸 9가구 전대생활관 인근 건물66평 토지47평 ▶ 감정가 2억6천 최저가 1억8천2백만원
- 담양읍 삼만리 전원주택마을입구 도로접 임야. 위치좋음 토지2730평 전원주택지 개발추천 ▶ 최저가 4억6천만원
- 함평군 나산면 답312평 마을입구 도로접 건축가능 주변환경양호 ▶ 최저거래가 1천5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